

<새 책 >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등

김도연기자 kdychi@munhwa.com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최서면·공로명·박준우 지음/제이앤씨) = 최근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고지도’와 ‘문헌해제’를 통해 독도 문제를 살펴보는 등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저자들은 독도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으로 다뤄온 최고의 전문가들로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기념 강연 ‘우리는 독도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의 내용을 수정 가필해 펴냈다.

★정치가 떠난 자리(김만권 지음/그린비) = 현재 뉴욕 뉴스쿨 정치학과에서 정치이론 및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자는 책에서 민주주의의 상실, 자유주의의 상실, 진보의 상실, 소통의 상실, 유토피아의 상실 등 다섯 가지 ‘상실’로 한국 정치를 진단한다. 저자가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수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못한, 혹은 그런 노력을 등한시한 진보세력이다.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전영철 지음/선교행복) =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인 2007년을 기준으로 600여 개에 이르는 100년 역사의 교회 중 400개가 넘는 교회를 찾아 대를 이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손을 만났다. 변절보다 순교를 택한 독립운동가 신석구 목사와 의병장 출신 순교자 구연영 전도사 등 독립운동가·순교자 가문 편, 평생 호남지역 교육과 선교에 헌신한 김형모 목사와 새마을운동의 뿌리가 된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 등 학자·교육자 가문 편으로 나눠 담았다.

★언더커버 보스(스티븐 램버트·엘리 홀즈먼 지음, 이영래 옮김/위너스북) = 미국 CBS에서 방송돼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동명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뒷이야기를 담았다. 프로그램은 대기업 회장들이 말단 직원으로 취업해 회사의 실상을 체험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렸다. 후터스, 세븐일레븐 등의 기업체 최고 경영자들은 좌충우돌하는 위장취업 경험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 정책의 부실함 등을 직접 체험했다.

★비즈니스의 맥(이홍 지음/삼성경제연구소) = 저자는 경영의 실수를 줄이는 게 경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튼튼한 기업체를 한순간에 휘청거리게 하는 실수는 비즈니스의 맥을 벗어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일어난다는 것. 저자는 고객관계 모델, 가치생성 모델, 비용 모델, 수익 모델 등 네 가지 큰 틀을 활용해 비즈니스의 맥을 읽는 방법을 제시한다.

★책인시공(정수복 지음/문학동네) = 사회학자인 저자가 침대, 전철, 도서관, 서점, 거리, 공원 등 다양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책을 읽는 여러 모습을 통해 책과 사람의 관계를 성찰한다. ‘배의 망루’ ‘여행자의 나무’ ‘글자가 달린 나무’ 등 개성 넘치는 그곳 동네책방의 풍경과 독서하는 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도 소개한다.